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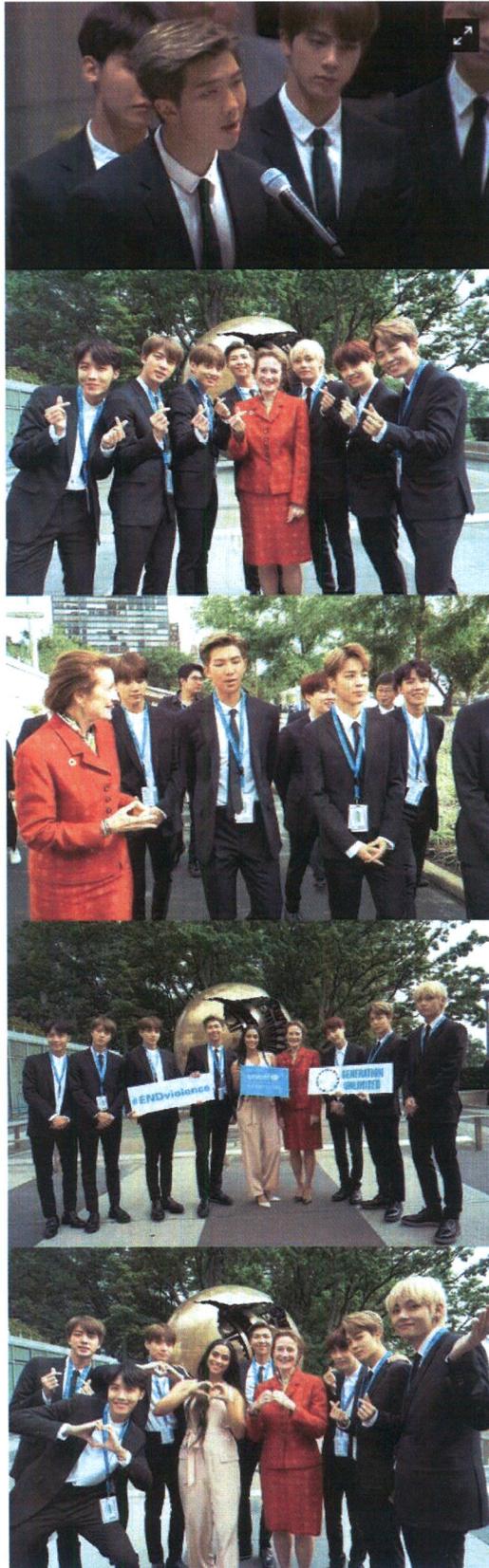
OSEN

방탄소년단, 유엔총회 연설 선정된 진짜 이유 "지향하는 가치 같다"

입력 2018.09.25 11:52 수정 2018.09.25 12:43

77

가



연예 뉴스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3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새로운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Generation Unlimited)(www.GenUnlimited.org)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은 'UN유스2030전략 (UN Secretary-General's Youth 2030 Strategy)'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모든 10~24세 청소년과 청년이 양질의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고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세계적 유투버 릴리 싱 유니세프 친선대사, 세계적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2030년이면 10~24세 인구가 20억 명이 된다"며, "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등교육과 직업훈련 등 기회와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청년대표로 초청받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어린 시절 별을 보며 내가 세상을 구하는 슈퍼 히어로라고 상상했었는데, 10살때 쯤 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염려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더라"고 회상하며, "그 시절 나의 안식처였던 음악은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나를 일깨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이와 함께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해, 청년세대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러브 마이셀프(#Lovemyself)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유니세프의 글로벌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ENDviolence)'에 동참해왔다.

방탄소년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주선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은 모든 가능성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한다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자는 유니세프의 새로운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는 지향하는 가치가 같아며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발표 행사에 함께 참석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교육 기회 불평등과 취업 문제는 범세계적 이슈"라며 "국제사회, 정부, 민간이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hsjsu@osen.co.kr

[사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방탄소년단 가수

더보기

- 스타의 '선한 영향력' 제대로 보여준, 방탄소년단
- "베스트 드레서"..美엘르, 방탄소년단 패션 집중 조명
- '정희' 소란 이태욱 "방탄소년단 노래 5곡 기타 연주했다"

음악은 멜로에서! 멜론바로가기

1185

OSEN 친구 2,749명

친구추가

- OSEN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부선 "권상우 결혼식에 5만원 내고 60만원어치 먹었다"
 - 숙웃 차림으로 말 타고 등장한 여성의 정체
 - 김종민, 연애바보→황미나에 직진♥ 연애고수 등극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주요보험사 비교견적 서비스
우체국암보험
모두비교.com
내 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